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유아의 표출 규칙 행동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ory of Mind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on
Young Children's Display Rule Behavior and Understanding*

배윤진(Yun Jin Bae)¹⁾

최보가(Bo Ga Choi)²⁾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of display rule by age and gender and the effects of theory of mind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on display rule. Subjects were 64 4- to 5-year old children. Instruments were false belief,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gift-giving, and display rule understanding task. Findings were (1) Display rule understanding differed by age; older children understood the display rules better than younger children. (2) Theory of mind influenced positive display rule behavior. (3) Theory of mind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isplay rule understanding.

Key Words : 표출 규칙 행동(display rule behavior), 표출 규칙 이해(display rule understanding), 마음
이론(theory of mind), 감정조망수용능력(affective perspective taking).

I. 서 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정서적 표현이 실제 감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환경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정

* 이 연구는 2007년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¹⁾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²⁾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Bo Ga Choi,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Puk-ku, Daegu 702-701, Korea
E-mail : bgchoi@knu.ac.kr

서 상태를 표현하거나 표현해서는 안되는 특정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서 표현을 하는 표출 규칙을 점차 학습하게 된다(Masters & Carlson, 1984). 표출 규칙(display rule)은 실제 느끼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하며(Liebman, 2005), 특정 사회적 상황에 주어진 사회적 관습을 통해 정의되어진다(Saarni, 1993). 즉, 표출 규칙이란 특정 상황에서의 적절한 정서 표현에 대한 사회적 기대이며(Goffman, 1967),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정서 표현을 위한 지침이 되어 개인의 정서 표현 행동을 조절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Saarni, 1984)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반응과도 관련되므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 된다(한유진 · 유안진, 1998). 따라서 일생 중 타인과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학령전기 아동의 표출 규칙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표출 규칙은 표출 규칙 행동(display rule behavior)과 표출 규칙 이해(display rule understanding)로 구분할 수 있다. 표출 규칙 행동은 자신의 실제 정서를 숨기고 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긍정적 표현을 하느냐 부정적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과 부정적 표출 규칙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표출 규칙 이해는 사람들의 실제 정서와 표현된 정서를 구분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다. 표출 규칙에 관한 연구들(Cole, 1986; Josephs, 1994; Saarni, 1979, 1984)은 정서를 숨기는 행동과 그 행동을 이해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Cole(1986)의 연구에서 3세와 4세 유아들은 자신의 실제 정서를 숨기는 능력은 있지만 표출 규칙 이해에 있어서는 적절한 표출 규칙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출 규칙 행동과 표출 규칙 이해가 동시에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표출 규칙 행동과 이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표출 규칙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으며, 특히 성별에 따른 발달을 살펴본 연구들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Saarni(1984)와 Cole(1986)의 연구에 따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실망스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숨기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잘 표현하였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Gosselin, Warren, & Diotte, 2002; Zeman & Garber, 1996)에서는 부분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표출 규칙에 대해 더 잘 이해하였다. 또한 표출 규칙 행동과 이해를 구분하여 함께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출 규칙 행동과 이해를 나누어 연령과 성별에 따른 발달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표출 규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정서 표현을 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표출 규칙의 발달은 타인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Liebman(2005)도 표출 규칙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인지적 측면인 마음 이론과 비인지적 측면인 연령, 감정이입, 정서적 자극, 정서 이해와 조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 인지적 이해에 해당되는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은 기억, 신념, 욕구, 의도와 같은 정신 상태가 어떻게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Peterson, Wellman, & Liu, 2005), 마음 이론의 획득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중요하다(Bennett, 1993).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그 상황에 적절한 정서 표현을 하는 표출 규칙의 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음 이론은 정서 발달에서 실재와 외양을 구분하는 유아

의 능력을 포함하며, 이것은 다른 사람이 겉으로 나타내는 정서와 내면에 느끼는 실제 정서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Harris, 1990). 유아는 이러한 마음 이론과 더불어 내적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때 비로소 표출 규칙 행동과 이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정서적 이해에 해당되는 감정조망수용능력(affective perspective taking)은 타인의 감정과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능력으로 표출 규칙의 사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표출 규칙 사용의 이유를 제공해주는 것이 된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은 적절한 정서 표현의 필수적 요소이므로(Garner & Power, 1996) 상황에 적절한 정서 표현을 해야 하는 표출 규칙 사용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표출 규칙의 발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되는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은 학령기 아동 중심의 선행 연구들에서 밝히지 못했던 학령전기 아동의 표출 규칙 발달 경향을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서로 연관 지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유아의 적절한 정서 표현과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서와 표출 규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표출 규칙과 실제-외현 정서 구분(심현주, 2006), 부모의 정서 규제(한유진·유안진, 1998), 마음 이론 및 인지억제조절(Liebman, 2005) 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그 수가 적고 다양하지 못하다. 이전 연구

들(이지은, 1997; Cole, 1986; Gnepp & Hess, 1986; Saarni, 1979 등)은 주로 연령에 따른 표출 규칙의 발달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지적 이해에 해당되는 마음 이론과 정서적 이해에 해당되는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표출 규칙에 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표출 규칙에 미치는 인지적, 정서적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음과 정서 이해 발달의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먼저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출 규칙 행동과 이해의 차이를 살펴보고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행동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학령기 아동 중심의 선행 연구들에서 밝히지 못했던 학령전기 아동의 표출 규칙 발달 경향을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서로 연관 지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유아의 적절한 정서 표현과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표출 규칙 행동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표출 규칙 이해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내의 유치원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이 만 4, 5세인 이유는 이전 표출 규칙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령 전기 아동의 표출 규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중 만 4세에 마음 이론 및 조망수 용능력 등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선행연구들(이영·김미령, 1990; 이영자·이기숙·이정욱, 1999; 이혜련·최보가, 2005)에 따르면 만 4세가 되어야 언어적 이해와 표현이 능숙해지므로 만 3세 유아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만 4세 유아보다 만 5세 유아가 33명(51.6%)으로 조금 더 많았으며, 유아의 성은 여아가 33명(51.6%)으로 남아보다 조금 더 많았다. 출생 순위는 첫째가 31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연령은 부 50명(78.1%), 모 52명(81.3%)으로 30대가 대부분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부 45명(70.3%), 모 43명(67.2%)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직업은 부의 경우 회사원이 31명(48.4%), 모의 경우 주부가 36명(56.3%)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의 월 소득은 300-399만원이 30가구(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마음 이론

마음 이론은 잘못된 신념 이해와 외양-실재 구분 과제의 총점을 의미한다. 잘못된 신념 이해는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Smarties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4)

배경변인	구분	빈도(%)
연령	만 4세(평균 56개월)	31(48.4)
	만 5세(평균 68개월)	33(51.6)
성별	남	31(48.4)
	여	33(51.6)
출생순위	첫째	31(48.4)
	둘째	25(39.1)
	셋째	7(10.9)
	넷째	1(1.6)
부연령	20대	1(1.6)
	30대	50(78.1)
	40대	13(20.3)
모연령	20대	4(1.6)
	30대	52(81.3)
	40대	6(9.4)
	모부재	2(3.1)
부학력	고등학교 졸업	16(25.0)
	대학교 졸업	45(70.3)
	대학원 이상	3(4.7)
모학력	고등학교 졸업	17(26.6)
	대학교 졸업	43(67.2)
	대학원 이상	2(3.1)
	모부재	2(3.1)
부직업	회사원	31(48.4)
	자영업	19(29.7)
	전문직 및 관리직	12(18.8)
	무직	2(3.1)
모직업	회사원	10(15.6)
	자영업	10(15.6)
	전문직 및 관리직	6(9.4)
	주부	36(56.3)
	모부재	2(3.1)
가구의 월 소득	100-199만원	3(4.7)
	200-299만원	11(17.2)
	300-399만원	30(46.9)
	400-499만원	12(18.8)
	500만원 이상	8(12.5)

과제(Perner, Leekam, & Wimmer, 1987)와 Maxi 과제(Wimmer & Perner, 1983)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두 과제를 합한 점수 범위는 0~4점이다. 외양-실재 구분은 선행연구(Flavell, Flavell, & Green, 1983; Lieberman, 2005)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과제의 점수 범위는 0~8점이며, 높은 점수는 외양-실재 구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나타낸다.

2) 감정조망수용능력

정서조망수용능력은 Borke(1971)가 제작하고 Kurdek과 Rodgon(1975)이 수정하였으며 선행연구들(김정인, 2001; 백미애, 2002; 이현숙, 2006)에서 사용된 감정조망수용능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즐거움, 슬픔, 두려움, 화남을 나타내는 4가지 얼굴 표정 그림과 이러한 네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속의 유아를 묘사하는 8가지 그림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기쁨을 나타내는 상황은 한 아이가 인형을 선물로 받고 웃고 있는 그림이며, 슬픔을 나타내는 상황은 친구와 헤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림이다. 실험자는 그림을 제시하면서 각 그림의 상황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 후 유아에게 ‘이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라고 질문하여 유아의 반응을 그대로 기록한다. 총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반응에 대한 채점은 본 연구자가 아동학 전공자 1인과 함께 하였으며 평균자간 일치도는 95.8%로 나타났다.

3) 표출 규칙

(1) 표출 규칙 행동

표출 규칙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aarni(1984)가 제작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지은, 1997; 지경진, 2004; Lieberman, 2005)에서 사용된 선물 주기 과제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선물 주기 과제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황에서 보여지는 유아의 표현을 관찰함으로써 유아의 표출 규칙의 자발적인 사용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웃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표출 규칙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작할 때 참가를 동의해준 것에 대해 유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도움에 대한 선물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유아에게 몇 가지 선물을 보여주고 유아에게 각각의 선물이 ‘좋은’ 선물인지 ‘좋지 않은’ 선물인지 구분하도록 한다. 다른 실험 절차를 마친 후, 연구자는 ‘좋지 않은’ 선물이 담긴 상자를 유아에게 주고 상자를 열어 선물을 보게 한다. 이 때 선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20초 동안 기록하며 20초 후에 실험자는 유아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바꾸도록 한다. 하지만 가장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 반응을 얻기 위하여 20초의 처음 10초 동안의 반응만을 점수로 매긴다.

채점은 유아의 반응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표시하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행동의 빈도수가 점수가 된다.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범주는 Ekman과 Friesen(1975)이 제작하여 표출 규칙에 관한 대부분 선행연구들(이지은, 1997; Davis, 1995; McDowell, O'Neil, & Parke, 2000; Saarni, 1984, 1992)이 사용한 행동 범주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반응은 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자 1인이 함께 관찰하여 기록하였으며 관찰자간 일치도는 긍정적 행동 90.9%, 부정적 행동 88.4%로 나타났다.

(2) 표출 규칙 이해

표출 규칙 이해는 선행연구(Joshi & MacLean, 1994)를 바탕으로 이미경(2005)이 우리나라 유

아에게 적합하게 제작한 이야기 과제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유아의 실제 정서와 표현 정서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6가지 짧은 이야기와 그에 해당하는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6가지 이야기 중 세 편의 이야기는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세 편의 이야기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다. 각 이야기에는 실제 정서와 표현 정서 그리고 표현 정서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다. 실제 정서와 표현 정서를 확인하는 질문은 강한 슬픔, 슬픔, 무표정, 기쁨, 강한 기쁨을 나타낸 다섯 가지 표정 사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출 규칙 이해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표출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에 앞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검사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검사 도구와 질문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7년 4월 11일부터 13일 까지 대구시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대구시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 67명을 대상으로 면담과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총 64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for Win 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사용한 검사의 평정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표출 규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출 규칙의 차이와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이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 간의 상관계수는 .32 이하로 두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두 변인 모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	1.0				
2	.318*	1.0			
3	.524**	.170	1.0		
4	-.234	-.147	-.559**	1.0	
5	.357**	.444**	.274*	-.144	1.0

* $p<.05$ ** $p<.01$

1. 마음 이론 2. 감정조망수용능력 3.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 4. 부정적 표출 규칙 행동 5. 표출 규칙 이해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출 규칙 행동

표출 규칙 행동은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범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출 규칙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할 때 표출 규칙의 긍정적 행동 차이와 부정적 행동 차이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긍정적 행동은 연령($F=.638, p>.05$)과 성별($F=1.402, p>.05$)에 따른 주효과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F=.409,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부정적 행동도 연령($F=.016, p>.05$)과 성별($F=2.508, p>.05$)에 따른 주효과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F=.00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출 규칙 이해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출 규칙 이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의 주효과 ($F=15.683,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세 유아($M=4.12, SD=3.551$)가 4세 유아($M=1.26, SD=1.897$)보다 표출 규칙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의 주효과 ($F=.475, p>.05$)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F=.284,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표출 규칙 이해에 대한 연령과 성별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

집단	SS	df	MS	F	p
연령	132.059	1	132.059	15.683***	.000
성별	4.004	1	4.004	.475	.493
연령*성별	2.389	1	2.389	.284	.596
Error	505.246	60	8.421		
Total	1121.000	64			

*** $p<.001$

3.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출 규칙 행동은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범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표출 규칙의 긍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긍정적 행동			
	B	표준오차	β	유의확률
마음 이론	.389	.086	.523***	.000
감정조망수용능력	.006	.194	.004	.974
F		11.536***		
R^2		.274		

*** $p<.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 이론($\beta=.523$)이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음 이론이 발달 할수록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은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을 27.4%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은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표출 규칙 행동($F=1.971, p>.05$)을 의미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이해에 미치는 영향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 이론($\beta=.241$)과 감정조망수용능력($\beta=.368$)이 표출 규칙 이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음 이론이 발달하고 감정조망수용능력이 높을 수록 표출 규칙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은 표출 규칙 이해를 24.9% 설명한다.

<표 5> 표출 규칙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표출 규칙 이해			
	B	표준오차	β	유의확률
마음 이론	.296	.144	.241*	.044
감정조망수용능력	1.025	.326	.368**	.003
<i>F</i>		10.128***		
<i>R</i> ²		.249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출 규칙의 차이를 알아보고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출 규칙 행동의 차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출 규칙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부정적 표출 규칙 행동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표출 규칙 행동 즉 실망스런 선물을 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실제 정서와는 다르게 행동 하는 것은 4세 유아와 5세 유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4,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표출 규칙 행동을 연구한 Liebman(2005)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표출 규칙 행동 모두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와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Saarni(1984)의 연구에서도 10세 아동이 6세 아동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4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Cole(1986)의 연구에서는 비록 4세 유아도 부정적 표현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나이 든 아동이 표출 규칙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지은(1997)은 1, 3학년 아동에 비해 5학년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더 잘 숨긴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지 않는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인 4세와 5세 유아의 발달이 부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해련·최보가(2005)의 연구에서도 정서 이해와 정서조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들(배기조, 2001; 이해련, 2003)은 유아의 표출 규칙 혹은 정서 능력에 있어서 3세와 4, 5세 사이에, 4, 5세와 6세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월령에 따른 표출 규칙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남아와 여아 간에 표출 규칙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 3, 5학년을 대상으로 표출 규칙 행동을 연구한 이지은(1997)의 연구에서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실망스런 선물을 받은 상황에서의 아동의 반응은 성보다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제시한 것과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성 역할 개념의 변화로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양성성을 강조하는 부모 양육과 사회적 기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상황에서 남아와 여아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기대가 동일하며 양성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의 분위기가 잘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사회에서 아동에게 요구하는 성 역할은 아동의 표출 규칙에 영향을 미친다는 Saarni(1984)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정서조절에서 나타난 성차는 순수한 성별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사회화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선행연구(이지선·유안진, 1998; 이혜련, 2003; 한유진, 2004)의 결과도 이러한 이유를 뒷받침 한다.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출 규칙 이해의 차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출 규칙 이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4세 유아보다 5세 유아가 표출 규칙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표출 규칙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는 연구들(한유진·유안진, 1998; Saarni, 1979)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출 규칙 행동의 발달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출 규칙 행동은 4세에

이미 나타나지만 표출 규칙 이해는 5세가 되어서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출 규칙 행동과 이해가 동시에 발달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Cole(1986)은 3세와 4세 유아들이 그들의 실제 정서와 다르게 정서를 표현 할 능력은 있지만 표출 규칙 이해에 있어서는 적절한 표출 규칙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Josephs(1994)는 실제 정서와 겉으로 표현된 정서의 구분을 이해 할 수 없는 4세 유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표출 규칙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표출 규칙 행동이 표출 규칙 이해보다 먼저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표출 규칙 이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이미경, 2005; 한유진·유안진, 1998; Banerjee, 1997; Gnepp & Hess, 1986; Harris, Donelly, Guz, & Pitt-watson, 1986)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표출 규칙 행동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와 유사하게 최근 사회에서 남아와 여아에게 요구하는 성 역할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아의 정서 이해에 관한 선행 연구들(김준희, 1997; 윤혜정, 1995; 이혜련, 2003; Dunn, Brown, & Beardsall, 1991)에서 정서 이해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행동에 미치는 영향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마음 이론이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부정적 표출 규칙 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마음 이론이 발달 할수록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마음 이론이 발달한 아동일수록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적절히 통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제시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정영선(2005)의 연구와, 마음 이론과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Cassidy 등(2003)의 연구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은 상황에서 긍정적 행동을하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물에 대한 외양 실재 구분 능력이 실제 정서와 겉으로 드러난 정서를 구분하여 실제 정서와는 다르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 이론의 발달과 더불어 자신의 내적 상태와 정서 표현을 조절하는 능력의 향상은 더 많은 표출 규칙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감정조망수용능력은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조망수용능력이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현숙, 2006; 정영선, 2005; Cassidy et al., 2003; Underwood & Moore, 1982)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것은 표출 규칙 행동과 긍

정적 사회적 행동은 비슷하지만 그 발달 과정이 다른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 모두 부정적 표출 규칙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Liebman(2005)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 Liebman은 부정적 표출 규칙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긍정적 표출 규칙 행동뿐 아니라 부정적 표출 규칙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이해에 미치는 영향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표출 규칙 이해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음 이론이 발달하고 감정조망수용능력이 높을수록 표출 규칙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이해가 높을수록 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추론할 수 있으며 그 것에 대해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마음 이론이 표출 규칙 이해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Liebman (2005)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 표출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 이론이 발달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연구들(Harris, Donnelly, Guz, & Pitt-Watson, 1986; Harris, Olthof, & Terwogt, 1981; Simpson, 2002)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김정주(2003)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감정조망수용능력이 서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지연(2003)의 연구에서는

감정 이입 능력이 있는 아동이 정서 조절을 잘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감정조망수용능력이 높을수록 표출 규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조망수용이 유아의 부정적, 긍정적 정서 조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송혜영(2007)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표출 규칙 행동과 이해는 동시에 발달하지 않으므로 후속연구에서도 표출 규칙 행동과 이해를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표출 규칙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만 4,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출 규칙의 전반적인 발달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표출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마음 이론과 감정조망수용능력만을 다루었으나 이외에도 많은 변인들이 표출 규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정인(2001).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정주(2003). 유아의 인기도와 자기조절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조망수용.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준희(1997). 아동의 정서이해, 기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배기조(2001). 취학전 아동의 개인 및 가족적 특성이 마음의 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백미애(2002). 부모의 정서표현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절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지연(2003). 아동의 감정이입과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송혜영(2007). 유아의 정서적·행동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심현주(2006). 유아의 실제-외현 정서 구분, 정서표출 여부 결정과 정서표출 동기 추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윤혜정(1995). 아동의 정서이해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미경(2005). 초등학교 아동의 정서 표현 규칙에 대한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영·김미령(1990). **발달적 접근방법에 의한 종일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이영자·이기숙·이정육(1999). **유아교수 학습 방법**. 서울: 창지사.

이지선·유안진(1998).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한국아동학회지**, 20(3), 123-137.

이지은(1996).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현숙(2006).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지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혜련(2003). 유아의 개인 및 부모 특성 정서 이해와 정서 조절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혜련·최보가(2005).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5), 1-14.

정영선(2005). 유아의 마음 이론 및 정서적 조망수용

- 능력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경진(2004). 실험자 변수에 따른 유아의 정서 표현 및 정서 조절 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한유진·유안진(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Banerjee, M. (1997). Hidden emotions : preschoolers' knowledge of appearance reality and emotion display rules. *Social Cognition*, 15, 107-132.
- Bennett, M. (1993). Introduction. In. M. Bennet.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on : The child as psychologist*(pp. 1-25). NY : The Guilford Press.
- Borke,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 Empathy or egocentrism?. *Developmental Psychology*, 5, 263-269.
- Borke, H. (1973).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between three and six year of age : A cross-culture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9, 102-108.
- Cassidy, Werner, Rourke, Zubernis, & Balaraman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Understanding and Positive Social Behaviors. *Social Development*, 12(2), 198-221.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Davis, T. (1995). Gender differences in masking negative emotions : Ability or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1, 660-667.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Ekman, P., & Freisen, W. V. (1975). *Unmasking the face : A guide to recognizing emotion from facial cue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 Flavell, J. H., Flavell, E. R., & Green, F. L. (1983). Development of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Cognitive Psychology*, 15, 95-120.
- Garner, P. W., & Power, T. G.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06-1419.
- Gnepp, J., & Hess, P. L.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rule.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Garden City, N.Y. : Double day.
- Gosselin, P., Warren, M., & Diotte, M. (2002). Motivation to hide emotion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3(4), 479-495.
- Harris, P. L.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and its cultural context. In G. Butterworth & P. Bryant, *Causes of Development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pp.215-237). Hillsdale, NJ : Erlbaum.
- Harris, P. L., Donnelly, K., Guz, G. R., & Pitt-Watson,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57, 895-909.
- Harris, P. L., Olthof, T., & Terwogt, M. M. (1981). Children's knowledge of emo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249-261.
- Josephs, I. E. (1994). Display rule behavior and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8, 301-326.
- Joshi, M. S., & McLean, M. (1994). Indian and English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65, 1372-1384.
- Kurdek, L. A., & Rodgon, M. M. (1975). Perceptual,

-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in kindergarten through sixth grad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 643-650.
- Liebman, J. I. (2005). The developmental patterns and cognitive predictors of prosocial display rule behavior and understanding : theory of mind and inhibitory control.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at George Mason University.
- Masters, J. C., & Carlson, C. R. (1984). Children's and adult's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states. In C. Izard, J. Kagan, & R. Zajonc(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Dowell, D. J., O'Neil, R., & Parke, R. D. (2000). Display rule application in a disappointing situation and children's emotional reactivity : Relations with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6*, 306-324.
- Perner, J., Leekam, S. R., & Wimmer, H. (1987). Three-year-olds' difficulty with false belief : The case for a conceptual defici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 125-137.
- Peterson, C. C., Wellman, H. M., & Liu, D. (2005). Step in Theory-of-Mind Development for Children With Deafness or Autism. *Child Development, 76*(2), 502-517.
- Saarni, C. (1979).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24-429.
- Saarni, C. (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Saarni, C. (1992). Children's emotional-expressive behaviors as regulators of other's happy and sad emotional states. In N. Eisenberg & R. A. Fabe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Vol.55.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pp.91-106). San francisco : Jossey-Bass.
- Saarni, C. (1993). Socialization of emotion. In M. Lewis & J.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 New York,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Simpson, D. L. (2002). The role of culture and gender in children's development of display rules and theory of mind.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Psychology at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 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Wimmer, H., & Perner, J. (1983). Belief about beliefs :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 103-128.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2008년 4월 30일 투고, 2008년 6월 24일 수정
2008년 7월 11일 채택